

## “20억대 상품권 비자금으로 썼다”

### 광주시-백화점 소송 기록...검찰 “깡 거처 현금화, 용처 수사”

박광태 전 광주시장 재임기간 각 실·국·과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26억 원 상당의 광주 백화점 상품권이 광주시의 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는 광주시가 이른바 상품권 ‘깡’(할인) 과정을 거쳐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 그 사용처를 집중 수사중이다.

오는 8일 민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품권 대금 청구소송 서류에는 당시 광주시 총무과 7급 직원 이모(47)씨의 부탁을 받고 상품권을 구매했던 이씨의 형(백화점 내 점포 운영)이 지난 2010년 상반기 백화점 측의 대금 지급 요청에 대해 같은 해 6월9일자 로 보낸 답변서가 첨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답변서에서 이씨의 형은 “귀사가 보내준 상품권 미결제잔액은 현재 주 사용처인 광주시청과 미결제잔액이 확인되지 않아 서로 협의중에 있으며, 이 상품권은 시청에서 업무상 비자금 조성을 위해 사용했던 바 현재까지 업무상 잔액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민사소송 서류에 따르면 이씨와 이씨의 형은 상품권의 대부분을 외상으로 가져갔다가 나중에 광주시 자치행정과, 경제정책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비서실 등 모두 24개의 법인 카드를 가져와 대금을 결제했다. 이들 카드 가운데는 시청 카드가 아닌 지역 기업의 카드도 포함돼 있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광주시는 2004년 말 450만원을 시작으로 2005

년 4070만원, 2006년 2억3840만원, 2007년 5억1630만원, 2008년 7억730만원, 2009년 3억2320만원, 2010년 7720만원 등 모두 664차례에 걸쳐 21억153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백화점 측은 광주시가 지난 2006년과 2007년 상품권 대금을 모두 결제한 뒤 거래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2008년부터 결제가 미뤄지기 시작해 2010년 초까지 5억820만원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씨의 형에게 2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낸 뒤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화점 측은 소장에서 “광주시가 상품권을 가져간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한 번에 결제해주는 등 신뢰관계가 있어서 외상거래를 계속했던 것”이라며 “대금 지급 책임이 이씨 등이

아닌 광주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수사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는 상품권이 현금화된 것으로 보고 이 금액의 사용처를 조사중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당시 광주시가 대량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깡을 통해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상품권 구매 불법성 여부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품권 구매에 사용된 광주시 각 실·국·과 업무추진비는 지난 2010년 박 전 시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등 문제가 됐던 2003~2007년 시장 업무추진비 사안과는 별개의 것으로 드러났다.

/윤현석기자 chado@kwangju.co.kr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거센 물살을 뚫고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돌며 한 여름 날씨를 보인 3일 광주 광산구 송산동 황룡강에서 식하는 물고기들이 강 상류로 올라가기 위해 거센 물살과 싸우며 뛰어오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나로호 10월 발사 문제없다”

### 방러 이주호 장관 “1단 로켓 7~8월 한국 이송”

두 차례의 실패 뒤에 시도되는 나로호 3차 발사가 예정대로 오는 10월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난 1일 밝혔다.

러시아와의 교육과학기술분야 협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3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한 이 장관은 이날 모스크바 한국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원장과 함께 나로호 1단 로켓 제작사인 흐루니체프사

를 직접 방문해 로켓 조립이 완성된 것을 직접 확인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장관은 “1단 로켓을 7월이나 8월에 한국으로 운송하고 10월 중에 나로호를 발사하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의 발사 실패 원인을 두고 한국과 러시아 양측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보완한 만큼 3차 발사는 꼭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김승조 항우연 원장은 나로호 3차 발사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 2차 발사에서 한국이 제작하는 2단 로켓에 설치했던 비행중단시스템(문제발생 시 지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동하는 자동정지)을 제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사찰 통행자 관람료 징수는 불법

### 순천지원, 천은사·전남도 손해배상 판결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등산객이나 통행차량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강모씨 등 74명이 지리산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관람료 부당 징수 관련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에서 천은사와 전남도가 강씨 등 원고에게 각각 문화재 관람료 1600원과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은사는 천은사를 관람하지 않고 단순히 지리산 861호를 이용해 통행하는 원고들에게 문화재관람료 1600원을 징수하고 이를 내지 않을 경우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 행위”라며 “전남도는 이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방치했으므로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강씨의 73명은 2010년 12월 지리산 국립공원의 지방도 861호선을 이용해 지리산 성삼재를 등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는 사찰 측의 주장에 따라 문화재관람료 1600원씩을 낸 뒤 천은사와 도로관리청인 전남도를 상대로 5700여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지만 일부 사찰 등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해 등산객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왔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 개막 22일만에...야간권 이틀만에 1만장 팔려

여수세계박람회(8월 12일)의 누적 관람객이 개장 22일만인 지난 2일 100만명을 돌파하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또 지난 1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오후 6시부터 입장할 수 있는 1만6000원짜리 야간 입장권 판매도 이틀만에 1만장을 넘겼다.

〈관련기사 5면〉

3일 조직위에 따르면 이날 6시 현재 누적관객은 108만여명이 박람회장을 찾았고, 지난 1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야간권도 지난 2일 현재 1만1000장이 팔려 서서히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는 최근 전시관 입장을 위한 대기시간이 줄면서 관람객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박람회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직위는 관람객 유치를 위해 일반 입장료의 반값인 야간 입장권을 판매하고 단체 관람객 할인을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조직위는 여행협회와 한국관광업협회, 시도교육청 등을 직접 방문해 박람회를 홍보하고 학생 단체 관람시 학급당 1명

## 여수박람회 관람객 100만명 돌파

을 무료 입장시키는 이벤트를 주기로 했다.

박람회 체험기간(6~30일)을 정해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참가자에게 박람회 수첩을 주고 경품 추첨을 통해 노트북, 아이패드, 마스코트 인형, 입장권 등을 선물하기로 했다. 이들을 태우고 오는 전세버스 운전기사에게도 입장권 2매를 준다.

또 조직위는 학생단체할인권을 현재 17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하는 특별대책도 논의 중이다.

여수시도 최근 김충석 시장이 서울, 경기 등 전국 25개 호남향우회장들에게 편지를 보내 박람회 관람을

요청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수시는 3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이 여수 지역에서 숙박을 할 경우 1인당 1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여수시는 환승주차장과 박람회장을 오가는 셔틀버스의 도심 경유지를 늘리고,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빅오쇼를 주말에는 공연 횟수를 한 회 늘려 2회 공연하자고 조직위에 건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하루 평균 관람객은 4만명선에 그치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93일간의 박람회 전체 기간의 관객은 500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일시: 2012년 7월 2일(월)~  
※매주 월, 화, 목, 금 18:00 ~ (총100시간)  
광신대학교  
☎062)605-1112, 1063

국립발레단, 광주 최초 공연!  
**‘백조의 호수’**  
7.6~7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 062-220-0541 |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 가슴으로 뛰는 모두의 축제 2012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 일시 2012년 6월 10일(일) 오전 8:30
- 장소 광주 상무시민공원
- 종목 10Km / 5Km
- 참가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 참가신청 홈페이지 접수 [www.pinkcampaign.com](http://www.pinkcampaign.com)
-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688-9744
- 기념품 르까프 기능성 티셔츠, 손목 아대



주최 |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 주관 | AMOREPACIFIC

후원 | 보건복지부 · 한국유방암학회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서구청 · KBS광주방송총국 · 광주MBC · KBC광주방송 · 광주일보 · 전남일보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협찬 | HERA · 케토툰 · 르까프